

복수의 미학 <올드보이> 안에 담긴 몇 개의 고전들

글_이영아 카톨릭대 강사

올드보이

2003년 11월에 개봉된 영화 <올드보이>는, <JSA공동경비구역>으로 유명해진 박찬욱 감독의 복수극 3부작의 제 2편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3부작의 첫 편인 <복수는 나의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영화를 예견했던 평론가들과 관객들은 전작이 가지지 못했던 상업성까지 겸비한 이 영화의 독특한 스타일과 장르, 그리고 신선한 소재에 감탄하고 열광했다.

영화 <올드보이>는 기본적으로 상업적으로 '잘 만들어진(well-made)' 영화이다. 말하고자 하는 것도 명징(明證)해 관객들을 혼란스럽거나 지루하지 않게 만들며, '멜로' 리프소와 '노와르' 적 요소, 거기에 '미스터리' 요소까지 들어있어 관객들의 시선을 실 틈 없이 붙잡아 둔다. 화려한 색감과 음울하면서도 압도적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선율, 신선한 촬영기법(특히, 영화 속 최민식의 3분동안의 롱테이크 '장도리 액션' 장면은 이 영화의 압권이다), 그리고 중간중간 보이는 블랙코미디의 요소까지. 물론 이 영화를 '잘 만들어지게' 만든 데에는 최민식이라는 배우의 뛰어난 연기력과 그 외의 배우들의 호연도 큰 몫을 했다. 그래서 관객들은 이 영화가 숨겨둔 '비밀'의 섬뜩함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보러 왔다. 그 덕분에 <올드보이>는 흥행면에서 꽤 큰 성공을 거두어 3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그리고 2004년 5월 화제를 뿌리며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이라는 쾌거를 거둔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청룡영화상, 2004년 대한민국 영화대상 등 국내 영화제에서도 <올드보이>의 활약은 대단했다. 2003년 흥행과 작품성 모두에서 인정을 받은 <살인의 추억>의 자리를 이 영화가 물려받고 있다고 할 만하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늘 주목하는 '잘 된 콘텐츠'의 전형적인 예인 것이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우리는 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생긴다.



한국 영화 <올드보이> vs 원작 일본 만화 <올드보이>

'잘 된 콘텐츠'에 숨어 있는 '고전(古典)'은 무엇일까? <올드보이>는 일본의 츠치야 가론, 미네기시 노부아키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그렇지만 막상 원작 만화와 이 영화 사이의 전체적인 유사성은 그리 크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단서, 장치들만을 변형해 차용했다.

① 의뢰를 받아 개인을 감금하는 폭력 조직의 사설(私設)연금회사에 이유도 없이 갇히게 된 주인공이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다시 풀려나게 된다.

영화는 15년만에 풀려난 데 비해 만화의 경우는 10년이다. 이는 처음 납치될 당시 4살이었던 딸 '미도'가 아버지라 할지라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자라나기에 10년은 다소 부족했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

② 인공은 자신을 가둔 사람이 누구이며 왜 가두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자신을 가둔 사람이 같은 학교 동창(Old Boy)이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원작의 경우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반면, 영화에서는 고등학교의 2년 후배로 설정돼 있어서 원작과 많은 차이가 있다.

③ 감금에서 풀려 나와 처음 만난 어린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데 이것이 가두었던 자에 의해 예비된 '후회면'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그러나 원작의 주인공 '고토'는 미혼(未婚)이었기 때문에 감금되기 전에 아내나 딸은 없었다. 따라서 다시 풀려난 뒤 만나게 되는 '애리'라는 여자는 자신의 딸이 아니며 영화의 '근친상간'이라는 소재도 원작에는 들어있지 않다.

④ 자신을 가뒀던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가두었는지에 대한 모든 비밀이 밝혀진 뒤, 가두었던 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러나 원작의 '카키누마'가 '고토'를 가둔 이유와, 영화의 '우진'이 '오대수'를 가둔 이유는 전혀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 자신의 노래에 감동해 주었던, 자신의 고독을 알아차렸던 유일한 아이 '고토'에게서 느낀 '카키누마'의 '굴욕감'과 '선망'이라는 감정 때문이었다는, 다소 모호한 설정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우진 남매의 근친애(近親愛)에 대해 생각 없이 퍼뜨린 '소문'과, 이로 인해 누이가 죽어버린 데 대한 '자책감'과 '복수심'이 그 원인이 됨으로써 보다 강렬한 갈등구조를 만들어 냈다.

이처럼 원작이 영화 기획 단계에서 참신한 설정이나 소재 등에 큰 영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의 차용방식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영화 <올드보이>를 말하는 데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양자간의 유사점(위의 '同'에 해당하는 부분)보다는 차이점('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원전은 다른 데에서 찾아야 한다.

영화 <올드보이> vs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 비극 <햄릿>

영화 <올드보이>가 따르고 있는 '고전(古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영화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복수'를 그 중요한 테마로 삼고 있는, 감독의 복수극 3부작의 한 편이다. 따라서 이 영화의 '고전' 역시 '복수'에 관한 작품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복수'에 관한 고전이다. 영화 속에서 미도가 인터넷에서 가끔 채팅을 하는 대화명 '에버그린' (이우진)이 미도와 함께 있는 오대수에게 '몬테크리스토 백작, 더 넓은 감옥에서의 삶은 안녕하신지'라고 말을 거는 장면을 보아도 이 영화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스토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총사>로도 유명한 작가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열아홉의 나이에 선장에 오를 만큼 유능했던 에드몽 당테스가 메르세데스와 약혼식을 앞두고 그를 시기한 당글라르와 메르세데스의 사촌오빠 페르낭 몬테고의 모함을 받는 데서 시작된다. 에드몽은 검사 빌포르에게 자신은 무죄임을 탄원하지만 빌פור는 자신의 야망 때문에 에드몽을 이프 성에 처넣는다. 그 후 늙은 신부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는 탈출해 선원이 돼, 몬테크리스토 섬에 있는 보물들을 손에 넣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작위를 받게 된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던 동안 그를 시기했던 당글라르는 남작이 돼있고, 페르낭 몬테고는 모르세르 백작, 메르세데스는 모르세르 백작 부인이 돼 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먼저 모르세르 백작에게 복수하고, 그 다음 빌포르에게 복수한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당글라르에게도 복수를 한 뒤, 다시 몬테크리스토 섬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여인 하이테의 사랑 고백을 듣고 함께 떠난다는 것이 이 소설의 대략적 줄거리이다.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복수를 준비한 뒤, 자신을 파멸시킨 자들에 대해 응징을 가하는 이 소설의 기본 틀거리는 영화 <올드보이>의 전반부와 유사하다.

또 하나의 유명한 고전, 셰익스피어의 4대비극 중 하나인 <햄릿> 역시 복수에 관한 내용이다. 덴마크의 왕이었던 햄릿의 부친이 갑자기 죽고, 그의 동생 클로디어스가 왕이 된다. 그리고 거트루드(햄릿의 어머니)는 시동생인 클로디어스와 재혼하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행적에 햄릿은 괴로워한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햄릿의 아버지가 유령이 돼 나타나 햄릿에게 자신이 클로디어스에게 독살됐다고 말하고 복수를 부탁한다. 클로디어스인 줄 알고 죽인 폴로니우스의 아들 레어티즈는 햄릿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레어티즈와 검술 시합을 한 햄릿은 레어티즈의 독을 바른 칼에 치명상을 입지만 클로디어스를 찔러 아버지의 복수를 한다. 거트루드는 클로디어스가 햄릿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독주를 마시고

- 1) '복수'의 플롯에 대해서는 Roland B. Tobias, 김석만 역,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가지 플롯』, 풀빛, 1997, 참조.
- 2) Sophokles, 천병희 역, 『소포클레스 비극-Oedipus Tyrannus』,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8.

죽고, 햄릿도 친구에게 세상에 진실을 알릴 것을 부탁하며 숨을 거둔다. 복수와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 그리고 성격은 다르지만 (시동생과 형수 사이의) 근친상간의 문제 등이 긴장감 있게 다루어진 <햄릿> 역시 <올드보이>의 이야기가 참고하고 있는 중요한 고전의 하나일 수 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복수를 '야생의 정의'라고 불렀다고 한다. 법이 정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상처에 대해 나름대로 되갚아주려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수'의 플롯이라는 것이다.¹⁾ '복수'의 플롯에 대해서는 Ronald B. Tobias, 김석만 역,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가지 플롯』, 풀빛, 1997, 참조.

'복수'의 플롯은 보통 (범죄, 끔찍한 사건)-(복수계획과 추적)-(대결)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안타고니스트가 행한 범죄가 강간이나 살인, 존속 살인 등으로 끔찍하면 끔찍할수록 프로타고니스트의 복수는 더 정당성을 지닌다. 그래서 '복수'의 플롯에서는 이야기의 전반부, 즉 '끔찍한 사건' 부분에 많은 공을 들여 주인공이 겪은 상처가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었는가를 충분히 보여준다.

<올드보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납치돼 지독한 외로움에 개미핥기까지 보면서 15년을 갇혀 있었던 오대수의 모습은, 관객들로 해금 그를 가둔 자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과 오대수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갖게 만든다. 특히, 오대수가 감금되기 전의 모습이 너무나 평범한 소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과 닮아있었기 때문에 관객들은 더 많이 오대수에게 몰입하게 됐다. 즉 우리가 오대수처럼 딸아이의 생일 선물을 사들고 귀가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될 수 있다는 공포스러운 느낌을 체험하는 것이다. 친구 주완이가 대수의 처와 통화를 하는 공중전화 부스 주위를 카메라가 도는 동안 그 뒤에서 있던 대수가 사라지는 것.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정적과 '소리 없이 사라짐'은 바로 그 직전까지 보여준 대수의 유쾌 발랄(?)한 주사(酒肆)에 대비돼 더더욱 섬뜩하다. 그 감금의 세월이 처참했던 만큼 관객들은 오대수가 행할 앞으로의 복수에 동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수'의 테마는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학작품이나 희곡 뿐 아니라 현대의 영화, 드라마 등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소재가 되었다. 박찬욱 감독에게 칸 영화제의 심사위원상을 안겨주는 데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알려진 쿠엔틴 타란티노의 최신작 <킬빌>부터가 '복수'에 관한 영화이며, <리벤지>, <하이논>, <요람을 흔드는 손>, <케이프 피어>, <돌이킬 수 없는>, <타임 투 킬>, 영화<몬테크리스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러셀워폰>, <써든 임팩트>, <매드맥스>, <메멘토>, <깡스 오브 뉴욕>, <트로이>, <소나티네>, <자토이치> 등의 외국 영화나 <H>, <복수는 나의 것>, <지구를 지켜라>, <살미도>, <가위>, <살인의 추억>, <범죄의 재구성>등의 한국 영화에서도 성격 및 비중의 차이는 있으

나 '복수'의 모티프가 들어있다.

또한 최근의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복수'는 중요한 소재여서, <태양의 남쪽>과 같은 드라마는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야기의 틀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남자이자 민주(유선 분)의 약혼자였던 성재(최민수 분)는 항상 성재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친구 용태(명로진)에 의해 모함을 받아 민주와의 행복한 약혼식날 경찰에 연행돼 공금횡령죄라는 누명을 쓰고 8년간 복역을 한다. 그리고 약혼녀 민주는 용태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성재의 곁을 떠나게 된다. 자신의 행복했던 인생을 한순간에 빼앗아버린 용태에게 복수하기 위해 석방 후 성재는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명석한 두뇌와 대담한 전략 등에 의해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용태에게 서서히 접근해 그를 파멸시킨다. 오랜만에 브라운관에 돌아온 최민수의 열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태양의 남쪽>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같은 고전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복수'의 플롯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초반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프로타고니스트가 조금씩 힘을 키워 안타고니스트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는 과정은 보는 이들을 즐겁게 만들어준다. 이외에도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공전의 히트를 쳤던 국민드라마 <대장금>에서도 '장금'의 '최상궁' 일파에 대한 복수극이 극 중반부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요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역시 버려졌던 아들이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스토리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영화 <올드보이> vs 비극 <오이디푸스왕>

그러나 <올드보이>는 '복수'의 플롯만을 가지고 있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복수'의 플롯은 선과 악의 구분이 분명하고, 이야기의 결말이 선의 명백한 승리로 끝난다는 점에서 단순명쾌한 이야기구조이다. 그래서 '복수' 플롯은 스펙타클성을 중시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들이나 액션영화 등에서 자주 쓰이는 틀이다. 원작 만화 <올드보이>에서는 '복수'의 플롯만이 존재한다. 카키누마는 패배하고(자살), 고토는 승리한다. 그러나 영화 <올드보이>를 보고 나온 관객들은 그렇게 단순명료한 통쾌함에 젖을 수가 없었다.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한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 이 영화는 애매한 답만을 보여준다. 신비평가들이 말한 대로 애매성(ambiguity)이 예술의 본질적 요건이라면, <올드보이>는 충분히 예술적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애매함이 이 영화의 매력이다. 그런데 이 애매성은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또 하나의 고전의 비극적 운명론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이 영화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고전을 꼽자면 아마도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감독 자신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영화가 고대 신화나 그리스 비극에서도 영감을 얻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오이디푸스왕>은 고대 희랍 비극이기 이전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가장 핵심 개념중 하나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는 '서사'나 '극성(劇性)'으로 이야기되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을 설명하는 도구로 더 자주 거론돼 왔다. <올드보이>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이미 평단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오대수가 혀를 자르는 장면은 원래 시나리오에선 성기를 자르는 것으로 돼 있었다는 박찬욱 감독의 말을 떠올려보면 이 영화가 얼마나 오이디푸스 신화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감독은 어머니를 범하고 싶은 아들의 욕망의 변형으로서 딸을 범하고 싶은 아버지의 욕망(혹은 아버지를 차지하고 싶은 딸의 욕망)과 그것의 처벌로서의 거세(castration)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소포클레스의 비극으로서의 <오이디푸스왕>은 '근친상간'이라는 '모티프' 수준에서 뿐 아니라 이야기의 구조 차원에서 <올드보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먼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은 테바이의 왕인 오이디푸스가 굶주림과 역병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구원을 요구받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오이디푸스는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테바이의 국민들을 구하고, 죽은 테바이의 왕 라이오스를 대신해 나라의 통치권과 왕비 이오카스테를 물려받은 코린토스 출신 사람이다. 오이디푸스는 테바이 국민이 역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폴론 신께 물어 보도록 처남 크레온을 델포이에 보냈는데, 그때 크레온이 돌아와서 '신이 원하는 것은 라이오스의 살해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고한다. 오이디푸스는 이 말을 듣고 라이오스의 살해자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저주를 선언하고, 예언자 테레시아스에게 라이오스의 살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테레시아스는 처음에는 진실을 말하기를 거절하며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오이디푸스는 답답한 마음에 버럭 화를 내며 테레시아스를 범행의 모의자로 몰아세우는 성급한 말을 내뱉는다. 그러자 예언자도 참다 못해 결국 오이디푸스 자신이 친부를 살해하고 친모와 결혼해 나라를 더럽힌 바로 그 범인이라고 말해버린다. 그러자 오이디푸스는 이런 모든 것이 왕권을 노리는 크레온의 음모이고 테레시아스는 그의 하수인일 거라며 예언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 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진 오이디푸스와 크레온은 말다툼을 벌이고, 왕비 이오카스테가 나타나 두 사람을 말린다. 오이디푸스가 화가 난 이유가 예언 때문임을 알게 된 이오카스테는 오이디푸스를 안심시키기 위해, 라이오스는 아들에 의해 살해될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었지만 결국

삼거리에서 도둑들에 의해 맞아 죽었다며, 신탁이나 예언은 믿을 게 못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오카스테의 말에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삼거리에서 시비 끝에 한 노인과 수행원들을 죽인 일을 떠올리며 오히려 더 불안해한다. 그러나 아직도 진실에 대한 확증이 없기에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던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는, 오이디푸스를 찾아 온 코린토스의 사자(使者)의 이야기 때문에 더더욱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사자는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였던 폴뤼보스가 자연사(自然死)했음을 알려주자 오이디푸스는 자신에게 내려졌던 아폴론의 신탁(자신이 부친을 살해하고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라는)을 피해갔다고 믿고 안도하지만, 사자로부터 폴뤼보스가 친부가 아님을 듣게 된다. 오이디푸스는 어렸을 때 발목이 묶인 채로 테바이의 부모로부터 버려진 것을 사자가 구해서 폴뤼보스에게 바쳤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 이오카스테는 오이디푸스가 바로 자신이 어릴 적 버린 아들을 깨닫고 오이디푸스에게 제발 더 이상 진실을 알려 하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끝까지 밝혀내려 한다. 이에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이오카스테는 방으로 가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만다. 결국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친부살해, 친모동침이라는 끔찍한 운명과 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 처음 선언했던 대로 라이오스의 살해자인 자신의 두 눈을 이오카스테의 브로치로 찢어 멀게 만든 뒤 나라를 떠나 정처없는 방랑의 길을 나선다.²⁾

이러한 <오이디푸스왕>의 스토리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테바이의 원인 모를 비참한 현실(흉년, 역병 등).
2. 신탁(神託)에 따라 라이오스 살해자에게 '복수'를 결심하는 오이디푸스.
3. 예언자 테레시아스와 오이디푸스의 진실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
4. 라이오스 살해자에 대한 테레시아스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오이디푸스.
5. 아내 이오카스테의 위로를 받는 오이디푸스.
6. 라이오스의 살해사건 정황 이야기와 오이디푸스의 출생에 관한 단서 드러남.
7. 진실을 감추려하는 이오카스테와 진실을 알려하는 오이디푸스.
8. 부친 살해, 근친상간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되는 오이디푸스.
9. 이오카스테의 자살.
10. 자신의 눈을 멀게 한 뒤 길을 떠나는 오이디푸스.

그럼 이번에는 <올드보이>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1. 오대수의 비참한 현실-영문 모른 채 감금된 15년 동안 살해당한 아내와 잃어버린 딸.
2.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자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는 오대수.

●〈오이디푸스 왕〉과 〈올드보이〉의 스토리구조의 유사성

(원인 모를 불행)→(불행의 원인에 대한 복수의 다짐)→(원인의 추적)
→(자아 내부에서 불행의 근원 발견)→(금기위반의 진실)→(자기 징벌)

3. 오대수, 감금에서 풀려나 미도를 만난.
4. 전화를 통해 조금씩 정보를 흘려주는 '에버그린(이우진)' 과 오대수의 긴장과 갈등.
5. 미도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오대수.
6. 이우진의 정체와 오대수의 과거의 행동이 기억남.
7. 이쯤에서 덮자고 하는 미도와 모든 진실을 알려 하는 오대수.
8. 근친상간의 진실을 알게 되는 오대수.
9. 자신의 혀를 자르는 오대수.
10. 누나 수아의 자살을 방조했던 이우진의 마지막 절규와 자살.
11. 최면으로 모든 비밀의 기억을 지우고 미도와 함께 살아가는 오대수.

이처럼 두 작품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불행 앞에서 그 불행의 원인을 찾아 복수할 마음'을 먹는 주인공이 진실을 파헤치는데 그 불행의 출발점이 자기 자신이었으며, 자신은 인간이 범해서는 안될 금기를 범했음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징벌을 가한다'는 스토리의 전체적인 틀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드보이〉를 이해한다면 이우진은 전지전능한 신(神)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가장 높은 곳(웬트 하우스)에서 살면서 모든 일을 꿰뚫어보고 있다. 오대수에게 닥친 모든 불행은 이우진에 의해 만들어지고 짜여진 각본이며, 오대수가 해 나가는 복수와 사랑의 수순마저도 '후퇴면'이라는 장치에 의해 조종된 것이다. 그는 때때로 오대수에게 과거에 대해 말해주고, 현재 상태를 풀어나갈 중요한 정보를 흘리며,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명령한다. 그리해 오대수의 운명은 이우진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는 오대수가 이우진의 운명을 자신의 혀로 휘둘렀다는 데에 있다. 별 뜻 없이 했던 오대수의 말 한 마디에 우진과 수아의 사랑은 불안해지고, 결국 수아가 죽음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복수'의 플롯이 형성된다. 즉 이 영화의 '복수'는 우진과 대수 양쪽이 모두 상대방에게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두 사람 모두의 패배, 또는 두 사람 모두의 승리로 끝나고 만다. 우진은 자신이 왜 대수에게 이러한 복수를 해야만 했는지를, 그리고 대수가 했던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만들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어줌으로써 '복수'했다. 대수는 우진이 자신에게 행한 '복수'가 또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어떠한 일을 해도 우진과 수아가 했던 사랑도, 죽은 수아도 되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복수'했다. 그리해 우진은 자살하고, 대수는 혀를 자르고 기억을 지웠다. 어느 쪽도 이길 수도 질 수도 없는 대결. 그 속에서 우리는 '금지된 사랑'이라는 '비극적 운명'을 본다. 바로 이것이 있었기에 이 영화는 관객들을 좀더 깊은 감정의 심연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을 빼앗

3) David Howard의, The Tools of Screenwriting, 심산 역, 시나리오가이드

아간 자에게는 그에 응당한 보복을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 행복을 빼앗아 간 것이 특정인간이 아니라 운명일 때, 인간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비극적 운명에 죽음으로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비극적 운명을 모르는 척 받아들이는 것인가. 이우진은 '우리는 다 알면서도 사랑했어요. 너희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남기고 자살함으로써 전자의 길을 택했다. 오대수는 '내가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놈이어도 살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라며 자신의 기억을 지워버림으로써 후자의 길을 택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오는 관객의 머리 속에는 이제 이러한 질문이 남을 것이다. 당신의 운명이 비극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면,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오이디푸스 왕〉이 충격적인 비극의 결말인 것 만큼이나 〈올드보이〉의 결말이 충격적인 데에는 뭐니뭐니해도 근친상간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금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근친상간 금지'라는 금기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의 이유가 단순히 '성욕(性慾)'일 때에는 그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이 당연시된다. 그러나 '사랑'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 또는 근친임을 몰랐다면? 이 영화가, 그리고 오이디푸스왕 이야기가 매력적인 것은 바로 이 지점 때문이다. 우진과 수아는 근친상간의 금기를 위반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성욕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대수와 미도도 근친상간의 금기를 위반했다. 그러나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함정이었다. 그리고 사랑이기도 했다. 그런 그들을 무조건 비난하고 매도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 '금기'나 아니나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이다. 오이디푸스에게 있어서 어머니인 이오키타를 아내로 취한 일이 '금기'나 아니냐 이전에 '운명'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주인공들의 위반은 처벌받아야 할 중죄임이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사연이, 운명이, 사랑이 있었기에, 관객들은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에게 몰입한다.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는 역시 수많은 소설, 희곡, 드라마, 영화의 소재이다. 데이비드 하워드(David Howard)가 말한 잘 짜여진 좋은 스토리의 기본 요건³⁾에서 '관객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누군가(somebody)가 어떤 일(something)을 하려고 대단히 노력하지만 그 어떤 일은 성취하기가 어렵다(difficult)는 틀에서 '주인공'이 행하는 '어떤 일'이 '사랑'일 때 그것은 쉬워서는 안된다. 따라서 '쉽지 않은 사랑'이 되려면 어떤 이유에서건 그 사랑은 '금지된' 것이어야 한다. 〈로망스〉, 〈애인〉, 〈결혼은 미친짓이다〉, 〈로미오와 줄리엣〉, 〈쉬리〉, 〈주홍글씨〉 등처럼 사제간의 사랑, 기혼자의 불륜, 연상연하의 사랑, 서로 다른 계급계층의 사랑, 원수의 집안자녀들의 사랑, 적과의 사랑 등 수많은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금지된' 사랑의 극단적 형태가 바로 근친상간의 문제일 것이다. 〈오이디푸스왕〉이나



〈올드보이〉처럼 실제로 ‘상간(相姦)’에까지 이르는 이야기는 많지 않지만 ‘근친애(近親愛)’는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에서 매우 자주 다루어진다. 이때의 ‘근친(近親)’이 어떠한 형태인가에 변화를 주면서 주인공들로 해금 다양한 사랑의 금기를 위반시킨다. 이병헌, 이미연 주연의 〈중독〉과 같은 영화에서는 형수를 사랑하는 시동생의 근친애가, 역시 이병헌과 추상미, 최지우, 김효진이 출연한 〈누구나 비밀은 있다〉에서는 세 자매와 모두 사랑을 하는 한 남자의 애정행각이 다루어졌다.

한편 일정기간에 걸쳐 연속으로 방영되는 드라마의 경우에는 더더욱 자주 근친애의 문제가 변주된다. 짧게는 16회, 길게는 50회 이상의 장편 드라마에서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뒤늦게 알고 보니 어릴 적 헤어진 남매였다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좋은 소재이다. 주인공들의 사랑이 행복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닥쳐오는 ‘금기위반’의 위기라는 반전은 120분 정도 안에 모든 스토리를 끝내는 영화에서보다 몇 주, 몇 달 동안 속고 있던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는 드라마에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피아노〉에서는 피 한방울 안 섞인 두 남녀 주인공이 부모님의 결혼에 의해 남매가 돼 버려 슬픈 사랑을 감추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가을동화〉에서는 어릴 적 아기가 뒤바뀌는 실수로 남매가 돼버렸던 남녀의 사랑이야기가, 〈겨울연가〉에서는 의붓남매인 것으로 오해하고 헤어지는 위기를 겪는 남녀의 이야기가, 〈진주목걸이〉에서는 어릴 적 입양됐던 여동생과 사랑을 하게 된 오빠의 이야기가, 〈다모〉에서는 집안의 몰락으로 헤어졌던 남매의 사랑 이야기가, 〈아일랜드〉에서는 어릴 적 입양됐던 여동생과 사랑을 하게 된 오빠의 이야기가 다루어짐으로써 출생에 얽힌 비밀이 두 주인공 남녀의 사랑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 금기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왜 고전(古典)인가?

그러나 드라마들의 경우, 공중파 방송이라는 한계 때문에 〈올드보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다만 아슬아슬하게 금기를 피해가거나 자신들의 출생의 비밀 앞에 순응하며 현실을 받아들인다. 결국 금기를 정말 위반하는 이야기는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자꾸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이러한 드라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연속극이라는 장르적 특성과도 많은 연관이 있다. 연속극이란 한번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 같은 시간 시청자들을 TV앞에 앉혀 놓을 수 있을 만한 강렬한 흥미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최소 16회 정도의 미니시리즈 내에서 몇 회 동안은 두 남녀의 탐색기가, 그 다음 몇 회 동안은 감정의 확인기가, 그 다음 몇 회 동안은 그들을 가로막는 방해자들(약혼자라든가 부모라든가)에 의한 사랑의 시련기가, 그 다음 몇 회 동안은

시련 극복기가 다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직 방영해야 할 횟수분이 2회 이상 남았을 경우, 시련을 극복한 연인의 그저 행복한 사랑의 에피소드로는, 해결 국면에 접어든 이야기에 긴장이 풀어져 버린 시청자들을 강력하게 흡인해 내지 못한다. 그럴 때 드라마 제작진들이 생각해 내는 새로운 반전이자 극약처방이 ‘출생의 비밀에 얽힌 금기위반’ 아니면 ‘주인공의 죽음’이다.

최근 미니시리즈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가 시작됨과 동시에 ‘출생의 비밀’ 또는 ‘주인공의 죽음’에 관련된 루머를 의도적 또는 우연적으로 유포한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미니시리즈들만 떠올려봐도 그렇다.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서는 이수인(김태희 분)이 죽는다는 소문이 벌써 퍼지고 있고,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드라마의 시작부터 차무혁(소지섭)의 뇌 속에 들어있는 총알이 그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다. 〈12월의 열대야〉에서는 박정우(김남진)가 뇌종양으로 3개월 뒤 죽을 것이며, 〈유리화〉는 어릴 적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던 세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며 지수(김하늘 분)와 동주(이동건 분) 사이에 출생의 비밀이 숨어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출생의 비밀을 다룬 드라마는, 아니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이라는 모티프는 이제 거의 모든 드라마의 필수양념처럼 들어있게 돼 버렸다. 출생의 비밀에 대해 더이상 캐내지 말라는 이오카스테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구덩이의 진실을 향해 달려가던 오디푸스처럼 현재의 한국 드라마들은 문화 평론가들과 시청자들의 만류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출생의 비밀 모티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형수님은 열아홉〉, 〈눈사람〉, 〈왕꽃선녀님〉, 〈황태자의 첫사랑〉, 〈인어아가씨〉, 〈파리의 연인〉, 〈미안하다 사랑한다〉, 〈흐르는 강물처럼〉, 〈작은 아씨들〉 등 그것이 금기를 위반하는 문제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삼각 애정관계를 이루고 있던 두 남자 라이벌이 알고 보면 형제라든가 자매라든가 하는 일은 부지기수이다. 그만큼 현재까지도 복수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출생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금기의 위반의 이야기는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의미이다. 그야말로 ‘욕 하면서도 또 보는’ 드라마와 영화들인 것이며, 그 근처에 고전이 있었던 셈이다.

이제 우리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올드보이〉가 잘된 콘텐트라는 사실은 한 두 가지의 측면에서만 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특히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끊임없이 흡입력을 발휘하는 고전(古典)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만하다. ‘복수’와 ‘금기’, 이를 둘러싼 ‘출생의 비밀’과 ‘사랑’의 이야기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을 지니고 있다. 〈올드보이〉는 그러한 고전에 새로운 설정과 참신한 기획으로 현대적 의미를 부여한 영화이다. ●